



젓소유방염 양·한방 병용법

한진식*

수의계에서는 지난 일세기동안 주로 양약에만 의존해왔다. 治病 효과가 월등하였기 때문이다. 양약제조과정은 과학기술에 의한 것이었고 한약은 재래식 法製方法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 발전이 뒤떨어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다. 양약의 원료도 한약제이다. 일본약국방제 7 개정판에 보면 350여 종류가 한약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도 다변화 의치시대에 길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내외에서 수지침의 마취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또 젓소유방염에 쓰이는 鱈膠가 포장되어 나와있다. 한약제의 성분분석을 일본에서 열심히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질병치료에 복합적 적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실제 응용도가 높다고 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방염 한약처방에 비소 화합물이 가미되는데 同封經口投與는 불편함과 동시에 체내에 전달도 완전치 못해 비소제는 주사가 합리적일 것이다. 또 항생제 및 설파제도 주사로서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유방염에 쓰이는 한약제 등을 열거하는데 한약의 원리는 藥草에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本草學을 기술한다.

1. 鱈 膠

민어 부레를 찌서 膠質이 이루어지면 세절하여 불에 고아 응고시켜 만든 魚膠다. 성상은 황

*한일가축병원

색 혹은 흑갈색을 띠는 판상 및 봉상으로 성분은 켈라틴이 주성분이나 상세한 것은 미상이다. 약간 짜며 효능은 유방염의 消腫消炎용으로 처방에 가미한다. 1 회분에 10g씩 가하고 볶아서 사용한다. 또 高級絆瘡膏 製造料에 加한다.

2. 黃 連

매자나무과에 딸린 식물로서 7~8 개년을 자란 뿌리를 채굴하여 蘆頭 및 鬚根을 제거하고 말린 것이다. 황련은 산야에 자생하고 원포에도 재배하는 宿根草로서 그 종류가 많고 줄기 높이는 10~30cm에 달하며 사철 마르지 않는다. 이른 봄에 구엽의 겨드랑이에서 줄기가 나고 그 위에 백색의 꽃이 핀다. 종류로서는 菊葉, 芹葉, 細葉, 三葉, 五加葉, 황련 등이 있다. 한약제로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황련이다.

성분은 berberin(C₂₀ H₁₇ N₄)를 함유한다.

berberin은 美麗하고 미세한 황색의 星紋狀의 결정체를 이루며 식물염기인데 쓴맛이 강하다. 용법은 蘆頭 및 鬚根을 제거하고 水洗 후에 질그릇에 볶아서 1 회에 2~4g씩 가미한다. 이 황련에 대하여 일본의 연구결과 종류별 성분의 함량의 차이가 있어 이를 열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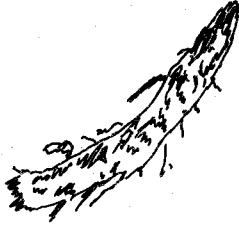
가. 菊葉黃連

약용식물로서 일본이 원산이다. 땅 위에 국화 잎과 같은 것이 더부룩하게 모여서 자라나고 뿌리와 잎은 자루가 있어 구분되고 3 구분마다 각

기 분열하여 날카로운 鋸齒가 있고 이른 봄에 5~10cm의 꽃대가 여러개 어긋나게 난다. 줄기마루에 회색오판화가 한송이 피고 이 꽃은 자웅離株다.



國葉黃連



國葉黃連 뿌리

이 황련은 berberin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대표적인 종류다. 일산은 현 시가 600g당 6만원인데 비하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모황련은 600g에 5천원 정도다.

우리나라에도 국엽황련이 산지에 희소하게 자라는데 앞으로 재배의 장려가 필요하다.

나. 細葉黃連

산지에 나무그늘 밑에 자생하는 다년생 藥草로서 뿌리에 나온 잎은 3회분열하여 나래모양으로 깊이 갈라진다. 자근잎이 2~3개로 갈라지고 뾰족한 핵이 있다. 이른 봄에 더부룩하게 난잎의 사이에 10~15cm 길이의 꽃대가 나와 백색의 꽃이 한송이 핀다.



細葉黃連

이 황련은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고 현재 약용에 쓰이는 모황련인데 좋은 품종이 못된다.

다. 三葉黃連

높은 산에 자생하는 다년생의 작은 草本으로 잎은 三出하고 작은 잎에 3개의 卵形 또는 披針形으로 예리한 鋸齒가 나있고 三裂片이 되어 있다.



三葉黃連

6~8월에 꽃대가 나와 백색의 한송이 꽃이 핀다. 여기에 약용아닌 유사종이 많다.

라. 五加葉黃連

산지에 자생하는 다년생의 작은 草本으로 잎은 三出 각 구분에 분열한다. 5개의 작은 잎은 썩기 모양을 하고 예리한 鋸齒가 있다. 4월경에 꽃대가 나와 백색의 오판화가 한송이 피고 꽃자루는 황색을 띤다. 이 황련은 강원도에 產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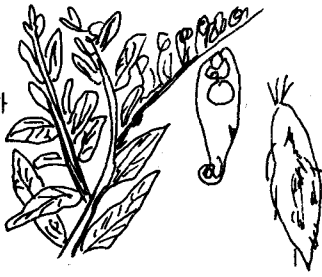
五加葉黃連

황련의 시판품은 중국산 川黃連, 일산 菊葉黃連, 우리나라산 毛黃連이 있는데 황련에는 식충(좀)이 번식하지 못한다.

3. 黃 耆

눈형과에 딸린 서근풀 scutellaria-baicalerensis, georg의 뿌리이며 약용에는 겨울철에 뿌리

지형백하



서근풀

를 캐내어 鬚根을 제거하고 水洗하고 24시간 水浸하였다가 外皮를 벗겨서 말린다. 원포에 재배하는 다년초이며 이른 봄에 旧根에서 줄기가 나와 60~90cm 정도 크다. 잎은 柳葉과 유사하고 毛茸이 나있고 잎자루는 없다. 여름철에 줄기 위나 가지위에 자주색 및 흰색의 입술 모양의 꽃이 피고 꽃이 진 뒤에 열매는 흑색 求圓形의 종자로 맺는다. 뿌리의 형태는 20~30cm에 달하고 외면은 暗灰色, 내부는 暗褐色이며 木部는 淡褐色을 띠고 皮 木部의 剝離가 잘된다. 맛은 약간 쓰다. 성분은 황색의 침상 또는 판상의 결정체를 하는 식물염기인 scutellarin (C₁₀H₈C₈) 이다.

효능은 청량해열약으로서 쓴 맛은 장에 作用하여 寒熱을 鮮消하며 비위의 濕氣를 瀉하고 복통을 治하고 괴저성유방염에 특효가 있다. 한의과에서 방광염에 잘 처방되는 약이다.

4. 黃 栢

황경피나무라고 생약제에서 말한다. 운향과에 딸린 Phellodendron; amurense Rup의 樹皮이

녹황하



황경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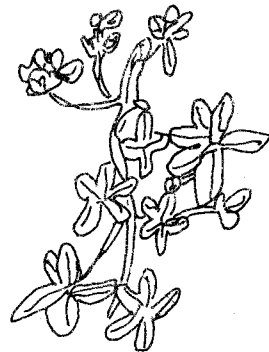
며 여름철에 剝離하여 말린 것이다. 한대지방 심산에 자생하는 교목으로 높이 4~6m에 달하고 나무의 형태는 그림과 같고 과실은 흑색 장과이다. 유효성분은 berberin이다. 효능은 방광염경약으로 이뇨, 유방습종을 치료한다. 용법은 外皮를 제거하고 볶아서 꿀에 浸漬 사용한다. 용량은 4~6g씩 가미한다.

5. 黃 芪

콩과에 딸린 astragalusihenyivri의 지하경이다. 식물형태는 그림과 같고 供藥部位인 뿌리는 15~16 또는 60cm에 달한다. 綿黃芪는 뿌리가 유연하고 단맛이 나며 木黃芪는 堅硬하고 맛이 쓰다. 효능은 완화강장약으로서 諸瘡에 聖藥으로 쓰이는데 약간 볶아서 4~6g씩이 1회분이고 사람의 당뇨병에 많이 처방된다.

6. 木 通

여름덩굴과에 딸린 덩굴진 낙엽관목으로 산야에 자생한다. 他木草에 纏繞하여서 크다. 뿌리를 木通 덩굴을 通草 열매를 林下部라고 한다. 나무의 형상은 그림과 같고 형태는 막대기 木質로서 細孔이 무수하게 뚫어져있어 타1단에서 타1단에 이르기까지 공기가 통하기에 通草라고 한다. 마치 연뿌리와 같다.



여름덩굴

利尿消炎藥인데 膀胱炎을 治하고 癰疽를 消失하고 유방을 소통시킨다. 용법은 녹피를 벗겨 마디를 잘라내고 약간 구어서 1회부에 4~6g씩 사용한다. 맛은 달다.

7. 鯪 鯉

인도, 히말라야산 하문, 선두 등지에서 서식하는 포유류 중 빈치류에 속하는森林속에 암굴의 집을 짓고 3식하는 검은 비늘이 박힌 끈끈한 침을 흘리는 짐승으로 비늘을 穿山甲이라 한다. 효능은 내공약 및 유통약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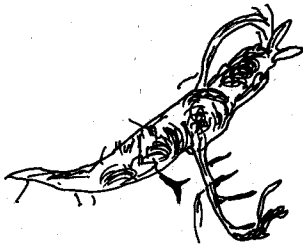
용법은 穿山甲을 세절하여 土炒(황토를 넣어 불에 볶음) 및 蛤粉炒(무명조개 가루를 넣어 볶음)를 하여 쓴다. 용량은 4~6g씩이 1회분이다.

8. 瓜 蘞

호로과에 딸린 하늘타리 *trichosanthesisjoponicargl*의 뿌리 및 종자다.



하늘타리



하늘타리 뿌리

누른 껍질을 黃瓜蘞 종자를 瓜蘞仁 뿌리를 天瓜粉이라 한다. 식물의 형태는 그림과 같고 효능은 瓜蘞仁은 거담진정약 및 통유 消腫을 한다.

또 炒用한다. 1회에 4~6g씩 쓴다. 天瓜粉은 백색의 전분을 제조하면 산성이 된다. 排膿

消腫의 작용을 하고 유통 腫毒을 중화한다. 용량은 3~4g씩이 1회분이다. 黃瓜蘞는 桔梗을 배오하여 유종으로 繁敏症이 일어날 때 적용된다. 용량은 6~8g씩이 1회분이다. 또 排膿能力이 강하고 乳腺의 痛症을 진정시킨다고 한다.

9. 乳 香

Frankincense 產地는 아자비아의 동남부 파도라모드 아프리카의 동부 소마리 및 동인도 지방에 產出한다. 橄欖科에 딸린 상록 소교목으로 *boswellia*속의 乳香樹다. 나무껍질에 흠집을 내어 滲出하는 진즙을 乳樣製造한 것이다.

백소화



유향나무

나무의 높이는 1.5~3.0m에 달한다. 잎은 나뉘는 모양으로 어긋나며 백색의 작은 꽃이 핀다. 종류는 여러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B. sacin*, *B. Faick*, *B. serrata*, *Poxb*, *B. glabora*, *Roxb*, *B. Floribuuda*, *Royle*, *B. carteri*, *bird* 등이 있고 유향은 두종으로 구분된다. 아프리카에서 產出하는 것은 아자비아종이라 하고 기타는 인도종이라 한다.

형태는 乳頭狀 혹은 腫類狀이다. 고무수지이며 포면에 백색의 粉塵을 덮는다. 조각면에는 광택을 띠고 이것을 씹으면 치아에 부착한다. 방향성이고 맛은 쓰다.

분소하면 상쾌한 향기있는 연기를 내며 검은 재를 남긴다. 樹間에 부착하여 응고한 것은 우량품이고 地面에 落下한 것은 하품이다. 성분은 휘발유 7%, 樹脂 50~60%, 고무 30~35%를

함유한다. 효능은 癰疽, 瘡瘍, 中風, 口噤不語, 부인의 惡血을 治療하고 諸瘡을 治癒한다. 또 去風 筋肉伸張 살을 희게 하고 疼痛을 진정시킨다. 치아를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치약에 혼합한다. 위장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용량은 0.5~1g씩이 1회분이고 연속 투여를 금한다. 용법은 燈心草를 넣어 연마 作粉한다. 또 이 유향은 신약제조 원료에 많이 쓰이기도 한다.



겨우살이

10. 沒藥

產地는 아자비아의 남부 및 이비서니아의 북부, 기본은 감람과에 煉沒藥 대극과에 花沒藥의 이종이 있다.

煉沒藥은 고무나무屬의 식물이고 花沒藥은 무화과屬 식물의 樹脂이다. 제조과정은 생략하고 성분은 煉沒藥은 고무 및 樹脂, 花沒藥은 미지의 酸 및 赤色素이다. 효능은 진통, 진정 및 통경약으로 쓴다. 용량은 1~2g씩이 1회분이다. 또 위의 乳香과 沒藥에 대하여 韓醫學者간에 부인의 유방염의 치료에 絶讚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소에 인용하여 유방염에 사용, 시험해보니 乳腺의 腫瘍에 治癒作用한다고 사료된다.

11. 白芷

產地는 太白山脈 山中 陰濕地에 自生하는 것으로 특히 慶北 및 江原道 地方에 多産한다. 기본은 미나리과에 딸린 3년생 草本인 구리때의 뿌리다.

상태는 상부에 葉殘基를 두고 하부에 많은 副根이 着生한 灰黄色의 隆起한 肥大根이다. 성분은 揮發油, 樹脂 및 기타의 酸이 함유되어 있다. 효능은 진통, 진경 및 排膿藥이다. 용법은 蘆頭 및 結縷를 제거하고 切片하여 米汁에 24시간 浸漬한 후에 陰乾한다. 용량은 8~10g씩이 1회분이다.

12. 忍冬草

honey suckle, 겨우살이과에 딸린 nonicera-

japonica, Thumb의 잎이며 약용에는 10월경에 채취하여 陰乾한다. 겨우살이는 원야 정원 및 산중에 많이 자라는 덩굴진 작은 관목으로 他樹木의 왼쪽으로 감겨 자라고 이른 봄에 새 잎이 나서 마주있다 잎은 난원형 및 타원형을 하고 잎 끝은 뾰족하며 연한 毛茸을 가진다. 이른 여름철에 잎의 겨드랑이에서 흰 꽃이 피고 꽃이 누렇게 되면 강한 향기가 난다. 이 꽃의 냄새를 마실 때는 단맛이 난다. 또 이 꽃을 黃變직시에 따서 약용하는데 金銀花라고 한다. 겨울철에도 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忍冬草라고 한다. 성분은 미상이나 효능은 창독 및 제창에 특수한 내복약이다. 약리작용은 맛은 달고 한열 및 내증을 치유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長壽하고 일체의 풍습기 및 諸腫瘍, 癰疽, 疥癬 毒瘡 諸惡瘡을 치료하고 해열, 해독, 古書에 의하면 살균력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잎과 꽃을 술과 차로 제조하여 복용하였다고 한다. 皇漢醫學에 의하면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응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약초 供藥部位 채취시기가 잎은 뾰족할 때, 꽃은 흰색이 황색으로 변할 때 가장 약효가 좋아 萬病通治의 聖藥이라고 하였다(肺弱 및 만성신경통에 10년동안 병원에만 찾아다니던 사람이 겨우살이만 3년 다려먹고 건강을 얻었다고 하였다). 또 우리 낙농가는 겨우살이 덩굴을 채취, 분쇄하여 사료에 타서 먹이면 성능좋은 소를 길러 낼 것이다.

13. 砒霜(信石, 砒石)

產地는 日本의 越前金谷, 越後赤谷産이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에 산출하나 그중 2대 비광으로는 충북 보은 해남면과 강원도 정선 시구면의 비광이 저명하다. 중국에는 信州産이 양질이다(비상의 이름을 중국사람들이 信州石에서 生産된다고 중국사람들이 信石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기본은 As_2O_3 , 제법은 옛날에는 백비석을 그대로 약용에 사용하였다. 지금은 순수한 무수 아비산을 응용함으로써 함비광석을 불에 태워 얻은 승화물을 장치된 毒室에 기계적으로 誘導하여 응집 결정시킨다. 상태는 자연비는 六方晶系에 속하는 것이고 보통은 金米糖狀의 小結晶粒을 이루고 함비광을 태워서 얻은 승화물은 백색분말을 이루나 이를 재삼 정제한 것은 투명초자양의 괴편이다. 성상은 비중 5.9 정도는 3.5로서 質이 脆弱하여 공기 중에 방치할 때는 백색분말을 이루고 불에 태우게 되면 마늘 냄새를 내고 열탕에는 근근히 용해한다. 성분은 비석은 비소, 비상은 무수아비산이다. 효능은 변질제로서 사용한다. 용량은 0.005g이다.

비소(화)AS 원자번호 74.91 천연에 유리되어 있으나 대개는 황화물로서 산출되고 회백색의 금속광택을 갖춘 무른 비금속-(arsenic)이다. 비소가 든 약제는(arsenide)다. 여기서 다시 disodium화한 arsenide는 spirochaeta:pallida에 적용되는 줄로 사료되나 적소 유방염에는 spirochaeta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섬유소 괴저 만성경결성 등의 유방염에는 비소가들은 한약병용이 탁효하다. 왜냐하면 체내에 비소가 들어가 독소인 유기물질을 變質作用하여 清血을 해주는 결과라고 인정된다. 한약처방에 비소를 배합 同封經口投與 해보니 비소전달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비소제는 주사하는 것이 위험성도 없고 전달도 빠르게 되니 “아리실”이나 “미오아세민” 같은 비소성분이 들은 주사약으로 주사하는데 지정량보다 배가가 필요하다.

14. 각종 유방염의 한약처방에

한약처방에는 四物湯, 六味湯, 八物湯의 基本

을 두고 처방한다. 四物湯은 熟地黃, 赤芍藥, 川芎, 當歸의 네 가지인데 通治血病에 주제로 삼는다. 六味地黃湯은 熟地黃, 山藥, 山藥, 白茯苓, 牡丹皮, 澤瀉 등의 여섯 가지인데 實質臟器의 虛弱한데 비노기 계통에 浮腫 老人 및 孕婦의 虛弱한데, 解熱, 陣痛에 주제로 삼는다. 八物湯은 四物湯에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등을 더한 것인데 治氣血, 陽虛, 虛淋巴腺에 주제로 삼는다. 十全大補湯은 八物湯에 黃芪, 肉桂를 加味한 것인데 一切虛損 負傷, 癰疽, 諸瘡 등에 주제로 삼는다. 어떠한 처방이라도 四物, 六味, 八物을 基本삼고 각기 適應症에 所要되는 藥材를 加減함과 동시에 주입량은 증상 및 체질의 大小에 參照하여 加減한다.

가. 급성유방염

R 1. 加減通乳湯

通草, 三芎, 王不留行, 鱧膠 각 6g, 穿山甲甘草 각 2g.

R 2. 加減八物湯

黃連, 白朮, 乾地黃, 白茯苓, 赤芍藥, 三芎, 當歸 각 6g, 甘草 4g.

나. 만성유방염

R 3. 加減流氣湯

蘇葉, 黃芪, 黃連, 當歸, 三芎, 白芍藥, 防風, 桔梗 각 6g, 肉桂, 甘草 각 2g.

R 4. 四物消乳湯

熟地黃, 當歸, 三芎, 赤芍藥, 黃連, 黃芩, 黃栢 각 6g, 甘草 2g.

다. 괴저성 유방염

R 4와 같고 鱧膠 4g 加한다.

라. 연쇄상구균성 유방염

R 5. 四物黃連湯

熟地黃, 當歸, 三芎, 赤芍藥, 黃連, 黃栢, 金銀花 각 10g, 白朮 白芷 각 6g, 肉桂 甘草 각 2g

병용하는 과학요법 재료는 증상에 따라 선택하고 비소제는 사람의 용량에 배가한다. 필자 한 사람의 의견보다 선배제현의 의견이 중인의 의견이니까 발전의 제도임을 알고 체언이 필요치 않다.